아몬티야도의 술통

The Cask of Amontillado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46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6-1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Edgar Allan Poe, "The Cask of Amontillado" (1846)

저자

에드거 앨런 포 (Edgar Allan Poe, 1809–1849)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2148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5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르투나토가 내게 입힌 수천 가지의 상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견뎌냈다. 하지만 그가 감히 모욕까지 일삼았을 때, 나는 복수를 맹세했다. 내 영혼의 본성을 잘 아는 당신이라면, 내가 위협이라도 가했을 거라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복수는 언젠가 반드시 실행할 것이었다. 이 점은 이미 확고히 결심한 사항이었다. 다만 그 결심이 워낙 단호했기에, 위험을 감수할 생각 따위는 애초에 하지 않았다. 나는 상대를 응징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응징해야만 했다. 응징자가 보복을 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수가 아니다. 또한 복수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한 복수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나는 말로든 행동으로든 포르투나토가 나의 선의를 의심할 만한 근거를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평소처럼 늘 그랬듯 그의 얼굴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나의 미소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를 죽여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며 짓는 미소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포르투나토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다. 다른 면에서는 존경받을 만하고 심지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법한 인물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는 와인 감식안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이탈리아인들 중에는 진정한 전문가 정신을 가진 이가 드물다. 대개 그들의 열정은 시대나 상황에 맞춰 꾸며낸 것에 불과하며, 영국이나 오스트리아의 백만장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회화나 보석 감식에 있어서 포르투나토는 그의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가짜 전문가였으나, 오래된 와인에 관해서만큼은 진심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나 역시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 또한 이탈리아산 빈티지 와인에 식견이 있었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와인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축제가 절정에 달해 모두가 광란에 빠져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친구를 만났다. 그는 술을 꽤 마셨는지 나를 보자마자 무척이나 반갑게 아는 체를 했다. 그는 광대 복장을 하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줄무늬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방울이 달린 원뿔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를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의 손을 한참 동안이나 놓지 못하고 꽉 쥐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포르투나토! 정말 운 좋게 만났군. 오늘따라 안색이 아주 좋아 보여! 그런데 말이야, 아몬티야도라고 불리는 술을 한 통 받았는데, 품질이 의심스러워서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가 말했다. "아몬티야도라고? 그것도 한 파이프나 되는 양을? 말도 안 돼! 게다가 지금은 한창 카니발 기간이 아닌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게다가 당신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아몬티야도 값을 전부 치러버리는 어리석은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당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봐 겁이 났거든요."

"아몬티야도!"

"의구심이 드는군요."

"아몬티야도!"

"그래서 그 의심을 풀어야겠습니다."

"아몬티야도!"

"당신이 바쁘니, 난 이만 루케시에게 가보겠소.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가 적임자니까. 그라면 내게 말해줄 수 있을 거요—"

"루케시는 아몬티야도와 셰리를 구분조차 못 할 사람이라네."

"그럼에도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그의 취향이 당신의 그것과 맞먹는다고 주장하곤 하지요."

"자, 어서 갑시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당신의 지하 저장고로 가시지요."

"친구여, 아니네. 자네의 선의를 이용해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네. 보아하니 다른 약속이 있는 모양이군. 루케시가—"

"선약은 없네. 가세."

"아니네, 친구. 약속 때문이 아니야. 자네가 지독한 추위로 고생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러네. 이 지하 저장고는 습기가 너무 심하군. 벽마다 질산칼륨 결정이 하얗게 피어올라 있어."

"그래도 일단 가세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몬티야도라니! 자네는 속은 걸세. 루케시 말인가? 그 친구는 셰리 와인과 아몬티야도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네."

포르투나토는 그렇게 말하며 내 팔을 붙들었다. 나는 검은 실크 가면을 쓰고 로켈레르 망토를 몸에 단단히 여민 채, 그가 나를 내 저택으로 서둘러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집에는 하인 한 명도 없었다. 축제 분위기에 취해 다들 즐겁게 놀러 떠나버린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아침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며, 집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해 두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들 모두가 내 등 뒤를 돌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자취를 감춰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벽면에 설치된 촛대에서 횃불 두 개를 꺼냈다. 그중 하나를 포르투나토에게 건네준 뒤, 여러 개의 방을 지나 지하 저장고로 이어지는 아치형 입구까지 그를 안내하며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뒤이어 길고 구불구불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나는 그에게 뒤따라올 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마침내 계단 끝에 다다르자, 우리는 몬트레소르 가문의 카타콤, 그 축축한 지하 묘지의 바닥에 함께 섰다.

친구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그가 성큼성큼 내디딜 때마다 모자에 달린 방울이 딸랑거렸다.

"파이프 말일세." 그가 말했다.

"더 가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저 동굴 벽에서 번뜩이는 하얀 거미줄을 보십시오."

그는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술기운에 젖어 흐릿해진 두 눈동자가 내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질산칼륨인가?" 그가 마침내 물었다.

"질산칼륨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기침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윽! 윽! 윽!—윽! 윽! 윽!—윽! 윽! 윽!—윽! 윽! 윽!—윽! 윽! 윽!"

불쌍한 내 친구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자, 이만 돌아갑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유하고, 존경받으며, 모두의 찬사를 받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때의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요. 당신처럼 귀한 분이 사라지면 모두가 슬퍼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어찌 되든 상관없지만 말입니다. 자, 어서 돌아갑시다. 계속 이러다가는 병이라도 날 텐데,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게다가 루케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게." 그가 말했다. "기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로 죽지는 않으니, 기침 때문에 죽는 일은 없을 걸세."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사실 당신을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요. 이 메도크 와인 한 잔이면 습한 기운을 쫓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곰팡이 슨 바닥에 길게 늘어선 병들 사이에서 병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 병의 목 부분을 쳐서 따냈다.

"자, 드시지요." 나는 그에게 와인을 건네며 말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입술로 가져갔다. 그러고는 잠시 멈추더니, 몸에 달린 방울을 딸랑거리며 나에게 친근하다는 듯 고개를 까닥였다.

"우리 주변에 잠든 죽은 이들을 위해," 그가 말했다. "건배하겠네."

"당신의 장수를 위하여."

그는 다시 내 팔을 붙들었고,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 지하 저장고는," 그가 말했다. "규모가 아주 방대하군."

"몬트레소르 가문은 세력이 대단했고 가솔도 아주 많았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대의 가문 문장이 잘 기억나지 않는군."

푸른 바탕 위에 황금빛의 거대한 발 하나가 그려져 있다. 그 발은 독니를 뒤꿈치에 박아 넣은 채 몸을 일으킨 뱀을 짓누르고 있다.

"그럼 가문의 표어는 무엇인가?"

"누구도 나를 건드리고 무사히 살아나갈 수는 없다."

"좋군!" 그가 말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와인이 반짝였고, 모자 위의 방울들이 딸랑거렸다. 나 또한 메도크 와인 기운에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술통과 커다란 나무통이 뒤섞인 채 뼈무더기로 쌓아 올린 벽 사이를 지나, 카타콤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포르투나토의 팔꿈치 윗부분을 움켜쥐었다.

"질산칼륨이군요!" 내가 말했다. "보십시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하 저장고 벽면에는 마치 이끼처럼 매달려 있군요. 우리는 지금 강바닥 아래에 와 있습니다. 습기가 맺힌 물방울들이 뼈 사이로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자, 너무 늦기 전에 되돌아갑시다. 당신의 기침도 심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가 말했다. "계속 가세. 하지만 그전에 메도크를 한 모금 더 마셔야겠어."

나는 드 그라브(De Grâve) 와인이 담긴 병을 깨서 그에게 건넸다. 그는 단숨에 병을 비워냈다. 그의 눈에서는 강렬한 빛이 번뜩였다. 그

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몸짓을 하며 병을 위로 던져 올렸다.

나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기괴한 몸짓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해가 안 가나?” 그가 말했다.

“전 모르겠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형제단의 일원이 아니군.”

“어떻게 말입니까?”

“당신은 프리메이슨이 아니군.”

“그래, 그래.” 내가 말했다. “그래, 정말 그렇다니까.”

“당신이요? 말도 안 됩니다! 석공이라니요?”

“석공입니다.” 내가 대답했다.

“신호를 해 보게.” 그가 말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로켈레르(roquelaire) 옷자락 아래에서 흙손을 꺼내 보이며 대답했다.

“농담도 잘하시는군!” 그가 몇 걸음 뒤로 물러나며 외쳤다. “하지만 일단 아몬티야도부터 확인하러 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나는 도구를 망토 아래로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그에게 다시 팔을 내밀었다. 그는 내 팔에 몸을 무겁게 기댔다. 우리는 아몬티야도를 찾기 위해 계속 길을 나아갔다. 낮은 아치형 통로들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고, 다시 길을 따라 걷다 또다시 계단을 내려가 깊은 지하 묘지에 도착했다. 그곳은 공기가 너무나 탁해서, 우리가 든 횃불은 불꽃을 일으키기보다는 그저 희미한 빛을 내뿜는 수준이었다.

지하 납골당의 가장 깊숙한 끝자락에는 공간이 더 좁은 또 다른 방이 나타났다. 그 벽면은 파리의 거대한 카타콤처럼 인간의 유해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유해들은 천장까지 높게 쌓여 있었다. 이 작은 방의 세 면은 여전히 그런 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네 번째 면은 뼈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려와 있었고, 뼈들은 땅 위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한쪽 지점에 제법 큰 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뼈들이 치워지면서 드러난 벽 안쪽에는 또 다른 공간이 보였다. 그곳은 깊이 약 4피트, 너비 3피트, 높이는 6~7피트 정도 되는 움푹한 공간이었다. 그 공간은 특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저 카타콤 지붕을 받치는 거대한 기둥 두 개 사이의 틈새를 메우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그 뒤편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외벽이 막고 있었다.

포르투나토는 흐릿한 횃불을 들어 올려 벽장 안쪽 깊숙한 곳을 살피려 애썼다. 하지만 그 희미한 불빛으로는 벽장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서 들어오게." 내가 말했다. "여기에 아몬티야도가 있네. 루케시에 대해서는 말이야—"

"그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일 뿐이야."

내 친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나는 즉시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는 순식간에 벽면 움푹 들어간 곳의 끝까지 다다랐으나, 눈앞을 가로막은 암벽 때문에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나는 그를 화강암 벽에 쇠사슬로 묶어버렸다. 벽면에는 가로로 약 2피트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두 개의 철제 고리가 박혀 있었다. 한쪽 고리에는 짧은 사슬이 매달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나는 사슬을 그의 허리에 둘렀고, 채우는 데는 불과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경악한 나머지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열쇠를 거두어들이며 벽 안쪽에서 뒤로 물러났다.

"벽 쪽으로 손을 한번 뻗어 보십시오." 내가 말했다. "질산칼륨 결정이 만져질 겁니다. 정말이지 아주 축축하군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만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 마지막 예우를 갖춰 드려야겠지요."

"아몬티야도라니!" 내 친구가 아직 놀라움이 가시지 않은 듯 외쳤다.

"맞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몬티야도 말입니다."

말을 마친 나는 앞서 언급했던 뼈무더기 사이를 분주히 뒤지기 시작했다. 뼈들을 옆으로 밀어내자 곧 건축용 석재와 모르타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재료들을 챙겨 들고 흙손을 휘두르며, 벽장 입구를 막는 벽을 힘차게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벽돌을 첫 단만 쌓았을 무렵, 포르투나토의 취기가 상당 부분 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징후를 가장 먼저 알린 것은 구석진 곳 깊은 곳에서 들려온 낮은 신음이었다. 그것은 술 취한 자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그러고는 길고 완강한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두 번째 단을 쌓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까지 차례로 쌓아 올렸다. 그때 쇠사슬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음은 몇 분 동안 계속되었다. 나는 그 소리를 더 만족스럽게 감상하기 위해 작업을 멈추고 뼈더미 위에 주저앉았다. 마침내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잦아들자, 나는 다시 미장용 흙손을 들었다. 그리고 중단 없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단을 쌓아 나갔다. 이제 벽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올라왔다. 나는 다시 잠시 멈춰 서서, 횃불을 벽돌 작업 위로 들어 올린 채 안에 갇힌 형체를 향해 가냘픈 빛줄기를 몇 번 비추어 보았다.

쇠사슬에 묶인 형체로부터 갑자기 터져 나온 날카롭고 높은 비명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나를 거칠게 밀쳐내는 것만 같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고, 몸을 떨었다. 나는 레이피어를 뽑아 들고 구석진 곳을 더듬으며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어떤 생각이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카타콤의 단단한 벽에 손을 얹어 보았고, 그 견고함을 느끼며 확신을 얻었다. 나는 다시 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울부짖는 그에게 응답했다. 나는 그 비명에 맞장구를 쳤고, 그 소리를 거들었으

며, 그보다 더 크고 강한 소리로 화답했다. 내가 그렇게 하자, 울부짖던 소리는 이내 잦아들었다.

자정이었다. 내 작업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단까지는 모두 마쳤다. 마지막인 열한 번째 단도 어느 정도 끝낸 상태였다. 이제 끼워 넣고 회반죽을 바를 돌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그 돌의 무게와 씨름하며,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대략 맞춰 두었다.

그때 갑자기 벽 틈새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섬뜩한 웃음이었다. 뒤이어 슬픈 목소리가 이어졌는데, 그 목소리가 고결한 포르투나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까지는 꽤 애를 먹어야 했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하하하! 히히! 정말이지 아주 재미있는 농담이야. 아주 훌륭한 농담이라고! 나중에 팔라초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배꼽을 잡고 웃겠군. 히히히! 하하하!"

"아몬티야도!" 내가 말했다.

"히히히! 히히히! 그래, 아몬티야도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포르투나토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팔라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겠군. 이제 그만 가세."

"그래요," 내가 말했다. "이제 그만 갑시다."

"제발, 신의 이름으로 부탁하네, 몬트레소르!"

"그렇소," 내가 말했다. "제발, 신의 이름으로 부탁하오!"

하지만 그 말을 던졌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초조해졌다. 결국 나는 큰 소리로 불러보았다—

"포르투나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한번 그를 불렀다—

"포르투나토!"

여전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남은 구멍 사이로 횃불을 밀어 넣어 안으로 떨어뜨렸다. 돌아온 것은 오직 방울이 딸랑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아마도 카타콤의 습기 때문이었으리라. 나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돌을 제자리에 끼워 넣고 회반죽을 발라 벽을 메웠다. 그리고 새로 쌓은 벽 앞에 뼈무더기를 다시 쌓아 올려 예전의 담장을 만들었다. 반세기 동안 그 누구도 이 뼈들을 건드리지 않았다. _In pace requiescat!_ (평화 속에 잠들기를!)